

몬테네그로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알바니아에 인접한 유럽 발칸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작은 국가이다. 인구도 60만명 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국가이지만, 2015년만 하더라도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 14회 등 수많은 도그쇼가 개최되고 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온 미오드레그 브레테니치 심사위원은 유럽 전 국가 및 미국, 아시아 국가의 심사로 항상 바쁜 심사위원이다. 또한 몬테네그로 켄넬클럽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 행정에도 능한 심사위원이며, 한국에서의 심사를 무척 기다렸다고 한다.

‘2015 서초 FCI 국제 도그쇼’  
15. 6. 26. - 6. 28.

# JUDGE'S EYE

진행 : KKF 국제팀 김현정 과장



## 미오드레그 브레테니치 심사위원 인터뷰

**먼저 장시간 여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처음이신데 소감이 어떠셨나요?**

몬테네그로에서 한국까지는 직항편이 없어 2번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어요. 몬테네그로의 수도인 포드고리차에서 세르비아의 벨그레이드까지 간 다음, 벨그레이드에서 아부 다비, 아부 다비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일정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아주 긴 여행이었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특히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저에게 보여 주신 환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피곤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열정적으로 심사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도그쇼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국은 쇼 운영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링은 충분히 넓었고, 카펫 상태도 아주 좋아서 개가 본인의 기량을 최고로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링 안에서 저를 도와준 스태프들은 모두 다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완벽하였고, 쇼가 스케줄에 맞추어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저를 도와 주었습니다. 출진자 또한 자신의 개들을 올바르게 핸들링하였습니다. 특히 로제트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상을 주면서도 제가 기쁘더라고요. 그런 아름다운 로제트는 어디서 구입했어요?

**사실은 맞춤 제작입니다(웃음).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심사하신 견종의 수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고, 몇 견종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대부분 스탠다드에 맞는 ‘엑셀런트’한 개들이었지만, 몇몇은 ‘엑셀런트’를 받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 아래의 등급을 수여하기도 했어요. 특히 놀라운 점은 베이비와 퍼피 클래스의 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훌륭했다는 점이에요. 이는 한국 브리더들이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브리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위 수상견들이 전세계 어느 도그쇼에 출진해도 좋은 상력을 획득할 만한 견종들이 몇 있는데, 바로 셰틀랜드 쉽독, 불독, 포메라니언, 프렌치 불독, 말티즈, 차이니즈 크레스티드 독입니다. 저는 금요일에는 포메라니언 스페셜티쇼 심사를 맡기도 하였는데, 어찌나 수준이 높던지 심사하는 내내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난 일요일 피날레를 장식한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의 베스트 인 쇼 심사를 맡으셨습니다. 여기에 관한 심사평을 부탁드립니다.**

베스트 인 쇼 링에 올라온 개들의 수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와이어 헤어드 닥스훈트는 적당한 사이즈에 훌륭한 비율을 자랑했으며, 몸집 또한 닥스훈트답게 컴팩트했을 뿐 아니라 움직임은 아주 정확하였고, 특히 이 날의 피모 상태와 쇼맨십이 탁월했기에 3위로 선정했습니다.

2위로는 꼬똥 드 틀레아를 선정하였는데, 완벽한 비율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으며 그 특유의 기질 또한 매우 돋보였습니다. 특히 피모는 최상의 상태였으며, 미용 또한 완벽하여 개를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최종 베스트 인 쇼로는 셰틀랜드 쉽독 암컷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셰틀랜드 쉽독은 이상적인 사이즈를 갖고 있으며, 특히 머리의 형태가 완벽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위치에 올바른 형태의 귀, 완벽한 톱라인, 올바른 꼬리의 위치, 탁월한 움직임, 풍부한 피모 등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베스트 인 쇼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최상의 상태로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심사위원들에게 물어보는 공통 질문인데요, 심사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도그쇼 링 안에 개가 입장하면 저는 가장 먼저 그 기질을 봅니다. 저와 눈을 마주칠 때 심사위원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머리 형태를 보는데, 모든 개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개의 모든 부분을 평가한 후에 움직임을 보는데, 다른 부분의 평가가 모두 같다고 가정할 때 순위를 정하는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일정 또한 힘드시길 텐데 편안한 여행 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좋은 기억만을 갖고 가기에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네요(웃음). 저를 초청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미오드레그 브레테니치(몬테네그로)**  
Mr. Miodrag Vretenicic

**FCI/KSCG 전견종 심사위원**  
**KSCG 사무국장**

미오드레그 브레테니치 심사위원은 Icily 견사호 아래 시베리언 허스키, 달마시안, 브리타니, 와이어 헤어드 닥스훈트, 몬테네그로 마운틴 하운드 등을 브리딩하여 FCI 인터내셔널 챔피언을 비롯한 수많은 챔피언 및 FCI 유럽 섹션 워너, FCI 월드 워너 타이틀을 획득하였다.

FCI 전견종 심사위원으로 유럽 전 국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국가에서 활발한심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몬테네그로 켈넬클럽(KSCG)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며, 몬테네그로 달마시안, 브리타니 클럽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